

# HOUSING NEWS

## 경남기업, '아웃사랑, 지역시장 행사' 개최



경남기업 조간연 상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그럴지 않은 기업보다 순이익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기업은 서해안 기름 유출 방제 작업, 단체 현혈 등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포스코건설, '지역 특산물' 추석 선물



민과 함께 풍요로운 명절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구정과 추석 즈음에 간 고등어와 제수용 생선, 검정콩 등 전국 각지의 특산물을 구매해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이외에도 자체 시장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 포함 죽도 시장과 자매 결연을 맺어 매년 장보기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추석에도 죽도 시장 상품권을 구매해 변함없는 지역 사랑을 실천했다.

경남기업이 (재)아름다운가게 담십 리역점에서 임직원들이 기증한 물건을 팔아 수익금을 기부하는 '아웃사랑, 지역사랑 행사'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경남기업 직원들은 이번 행사를 위해 2000점의 물건을 기증했다. 또 기증된 물품을 수거 분류하고 행사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자원봉사자로도 활동했다.

포스코건설이 추석에 전 임직원들에게 김과 미역, 다시마 등이 담긴 수산물 세트를 명절 선물로 제공했다. 이 수산물 세트는 포스코건설이 농어촌 살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 특산물 구매 운동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포스코건설의 농어촌 특산물 구매 운동은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농어민과 함께 풍요로운 명절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구정과 추석 즈음에 간 고등어와 제수용 생선, 검정콩 등 전국 각지의 특산물을 구매해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이외에도 자체 시장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 포함 죽도 시장과 자매 결연을 맺어 매년 장보기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추석에도 죽도 시장 상품권을 구매해 변함없는 지역 사랑을 실천했다.

## 한화건설, 고객 초청 '컬투쇼'



한화건설(대표이사 김현중)이 지난 달 31일, 부산 지역 고객 400여 명을 해운대 문화회관으로 초청해 개그 패밀리 컬투(정찬우, 김태균)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부산 지역 '꿈에 그린'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컬투 외에도 <웃찾사>에 출연 중인 '택시', '안풀이' 팀이 출연해 고객들에게

케다란 웃음을 선사했다. 또 가족 댄스 티임과 8월 생일 고객 축하 행사를 마련해 입주민 간에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도 가졌다.

## 화성산업, '창업 50주년 수기 공모전' 시상



지난달 1일에 창업 50주년을 맞은 화성산업(대표이사 이인중)이 지난 7월부터 진행한 '창업 50주년 기념 사진·수기 공모전'의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9월 2일, 동아백화점 쇼핑점 아트홀에서 가졌다. 이번 공모전에는 화성·동아 50주년을 주제로 화성 APT에 입주한 가족이나 에피소드, 화성 건설 현장 및 동아백화점에서 담 흘리는 보람, 화성·동아의 소중한 인연, 화성이 지은 건축물 등의 부제를 정해 실시했는데, 사진 공모전에는 총 434명의 작품이, 수기 공모전에는 총 264명의 작품이 응모하는 등 모두 700여 명이 응모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사진 부문에서는 '대구 전시컨벤션 센터 야경'을 출품한 이대희 씨가, 수기 부문에서는 '소중한 인연의 공간, 그 50년' 이란 제목으로 출품한 권정혜 씨가 수상했다. 이 밖에 금상 각 1작품과 은상 각 2작품, 사진 부문 동상 5작품, 입선 각 20작품 등 모두 53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돼 2천여 만 원의 상금과 상패, 상장을 받았다.